

※ 스포일러 주의



단순한 진심

저자 조해진

출판 민음사

발매 2019.07.05.

블로그 이웃이자 학과 후배 '문학청년' 님에게 추천받은 한국 문학 한 편입니다. 읽으면서 적은 토막글 바탕으로 리뷰를 남겨봅니다. 아래 '문학청년' 님이 남긴 리뷰 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두말할 필요없는 (개인적인) 최고의 인생책 [단순한 진심]

인생책을 만났다.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

blog.naver.com

저는 책을 읽을 때 표지를 먼저 읽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는 편입니다. 보통 목차와 프롤로그가 반겨주는 편인데, 이 책은 목차도 없이 시작합니다.

영화 같은 소설입니다. 자신의 한국 이름인 '문주'의 기원을 찾기 위해 아이를 품고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온 입양아가 '복희'라는 인물을 만나 그녀의 삶을 되짚어보며 그녀를 이해하고 한국에 남아있던 한과 응어리를 해소해나가는

그런 이야기. 그 밖에도 여러 인물이 주인공 주변에 등장하지만, 이들은 복희라는 서사의 중심에서 뿔친 가지 같은 느낌입니다.

복희는 주인공에게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타인에게는 세상 무뎡뎡해 보이지만 자신에게만큼은 맛있는 음식, 자신이 그리워했던 음식을 대접해 주며 환대하는 친절 엄마, 생모 같은 존재입니다. 이와 동시에 입양아인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버려진 자신에게 '문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잠시 돌보다 입양 보낸 기관사 같은 사람. 자신을 왜 버렸는지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그 이전의 따스함을 덮어버리고, 물을 데 없는 감정이 복희에게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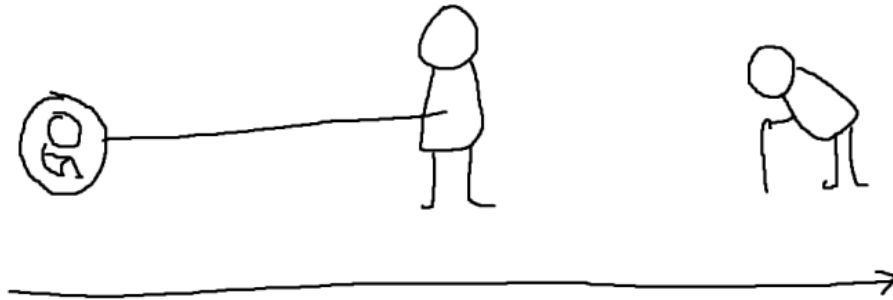
복희와 기관사의 삶을 추적해갈수록, 원망의 감정은 오갈 데 없어집니다. 이들에게도 사연은 있었거든요. 이 밖에도 여러 사건을 겪으며 '문주'이자 '박에스터'이자 '나나'인 주인공이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픈 과거를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로 시작해 주인공, 주인공의 아버지, 주인공을 한국에 부른 사람과 그 사람의 지인 모두가 영화계 종사자인 작품이라니... 탄 길로 잠깐 새서 기습 송배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는 내내 후지모토 타츠키의 '파이어 펀치'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해당 만화를 끝까지 본 분이라면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만화는 몰라도, 만화에서 파생된 아래 밈을 아시는 분은 좀 계실 겁니다.





영화와 인생 주제의 작품에서 후지모토 타츠키의 만화, 그중에서도 파이어 펀치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 초에 '체인소 맨' 보고 몇 달간 후지모토 타츠키 작품에 완전히 빠져서 보게 되었네요. 아직도 제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정돈되지 않은 수백 줄 넘는 감상평이 남아있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만화지만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고 참을성 좋은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밀린 책 리뷰와 함께 이 감상평도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해서 올려야겠습니다.



여하튼 돌아와서, 이번에는 인상 깊었던 구성들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데칼코마니 같은, 대칭적인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중년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접어보면, 그녀가 품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우주'와 죽음을 앞둔 노년의 복희는 포개어집니다.

인생의 초반부를 외로움과 어둠으로 기억하는 주인공처럼 복희는 인생 후반부가 쓸쓸하고, 까마귀 같은 동생과 주변인으로부터 아직 죽지도 않은 육신을 뜯기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관련된 묘사를 볼 때마다 저는 과거 폴리처 상 수상 사진인 케빈 카터의 '수단의 굶주린 소녀'가 생각나더라고요. 버려진 아이와 기댈 곳 없는 노인은 삶의 양 끝에서 대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입양이라는 처지에서 살아남기도 바빴을 테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오고 아이를 가지며 공감대를 쌓아온 지금에 와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복희에게서 과거의 자신, 과거의 기관사, 미래의 우주, 과거의 생모를 봅니다. 시간이 답이라는 말이 이보다 어울릴 수 없겠습니다.

참 정교한 작품입니다. 초반부에는 무슨 이름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싶다가도, 결과적으로 주요 인물의 이름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중요한 퍼즐 조각이 끼워맞춰집니다. 출산을 앞둔 인물이 자신이 막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찾는다는 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잘 짜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김현 시인의 추천사에서 빌리자면, 작가의 시선은 가로등 같았습니다. 어두운 주변을 완전히 밝히지 못해 무심한 듯 하다가도, 그 아래를 지나는 인물들을 한 번씩 조명하는 그 불빛이 참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낮은 곳만을 비추더라고요. 따뜻한 관찰자 같았습니다.

당연히 수준 낮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회의 소외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럿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의 인물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카페 알바를 하는 와중에도 사비와 자신의 집까지 비워가며 배우와 스태프를 챙기는 영화감독과 전역 후 진로 고민 중인 남자 친구, 영화관 아르바이트생 동생. 주인공의 양아버지와 양어머니. 복희와 노파. 글이 길어질까 영화 삼 인방의 이야기만 자세히 썼지만, 제각기 모두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임이 작중 내내 그려집니다. 주연 배우가 정해져 있긴 해도, 그 밖에 조연들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전반적인 글 구성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장 또한 수려하고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단마다 작가의 글쓰기 솜씨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풀어내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자신이 입양이라는 사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등. 에둘러 정보를 전달하고 떡밥을 던져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추론하고 머릿속에 구조도를 정리하는 재미를 줍니다. 인용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권 책에서 직접 읽고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생략합니다.

이탤릭체의 사용도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할 때 쓰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다 읽어갈 즈음에야 이탤릭 체를 사용한 내용이 우주를 향한 말 위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어의 한자 뜻풀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도 재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통 무언가 읽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찾아보곤 하는데, 그걸 소설 속에서 그려낸다는 것이 익숙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 책 내용과 이어지면서도 상식 하나 배워가는 게 마치 아따맘마 쿡킹 스튜디오 같다고나 해야 하나. 환기가 되면서도 그럴듯한 지식 하나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이제 인상 깊었던 구절들 몇 개 인용하여 생각 덧붙인 다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백복희는, 추연희의 우주였으므로…….

188p

의도된 문장으로 보입니다. 우주는 자신이 품고 있는 아이의 이름, 자신의 아이라는 뜻이면서 우주라는 단어 뜻 그대로 그녀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표현이 쓰이거나 해석이 어려운 문장도 아닌데, 말 줄임표가 주는 여운이 상당히 짙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생이라는 표면에 군데군데 나 있는 깊고 어두운 굴 같은 것이어서 발을
헛디터 그곳에 빠질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영원히, 그 굴 안에서만 머물지 못한다. 고립이
필연적인 자기 연민에 침잠하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으나 그 마음의 상태를 사랑한 적은 없었
다, 단 한 번도.*

192p

자기 연민은 집 같은 느낌입니다.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역시나 균형이 중요하겠지요.

어쩌면 나는 그녀를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왔으며,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버린 선택을 용서할까 봐 두려워했던 건지도 모른다. 서울의 산부인과 병실이라는 내 삶의 뜻밖의 공간에서 나는 그제야 깨닫는다. 생모의 한 조각이라도 복원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싶어 했으면서도 타협 없이 그녀를 미워하면서 생의 일부를 다 살아 버렸다는 것을…….

193p

후반부로 갈수록 인상적인 구절이 대거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소설은 제게 질문합니다. '정말 자신을 극도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큰 사건을 겪지 않고도, 겪고 나서라도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을 수 있을까?' 유튜브 '부산의사 김원장' 채널에서 본 민식이법 관련 영상([링크](#))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뻔하다면 뻔한 말이지만, 결국엔 용서가 맞는 걸까요?

이걸 진심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서 한 마디를 위해 내가 가진 미움과 분노, 온갖 감정으로 점철된 마음을 억눌러가며 쉽게 내뱉을 수 있을지. 오히려 용서라는 선택은 그런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나약한 선택이 아닐지. 선택의 상황에 놓인 가까운 친구에게, 나 자신에게 무엇을 권해야 할지 쉽사리 마음이 서질 않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장에서야 제목 그대로 생모에게 '단순하지 않은' 진심을 전합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페이지, 모든 전개가 마지막 장에 담긴 담담하고 단순한 몇 마디 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아마도 주인공은 모두를 용서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뻔한 결말이겠지만 전 좋았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아이 엄마가 가진 신성한 이미지 덕분일까요?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해소하는 듯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 감정과 얽힌 이들을 위로하고 구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애매한 결말이지만 역시 해피엔딩으로 해석하는 편이 저는 좋네요.

추천사도 인용하고픈데, 어느 한 구절만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생략합니다. 특히 김현 시인의 추천사는 읽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네요. 내가 느낀 감정을 우아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책 읽게 되신다면 추천의 글까지 꼭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면서 조심스러웠던 것이, 작품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만한 부분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이름의 기원을 찾아 나간다는 점, 몇몇에겐 다소 민감하게 느껴질 법한 주제가 언급된다는 점에서 영화 '박하사탕'이 떠오르기도 했네요. 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토막글을 기워 쓰느라 다소 장황하여 뜻이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잘 읽은 소설입니다. 추천받을 만한 소설이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영화나 만화 같은 2차 창작물로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중 영화 기법이 종종 언급되기도 하고, 시각화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가 궁금하네요. 좋은 책을 추천해 준 '문학청년'에게 감사의 인사 남기며 리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